

BP, 삼성석유화학 지분 전량매각

이부진 상무 33.1% 인수 최대주주 부상 ... 삼성물산 14.22% 인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가 영국 BP(British Petroleum)가 매각한 삼성석유화학 지분을 인수해 삼성석유화학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BP가 삼성석유화학 보유 지분 47.4% 전량을 매각했으며 10월10일 이부진 상무와 삼성물산이 각각 33.18%, 14.22%의 지분을 인수했다.

지분 취득액은 이부진 상무가 약 450억원, 삼성물산이 192억원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BP가 적자상태인 삼성석유화학의 보유지분 인수를 삼성에 요청했으나 삼성물산 외에는 인수할 계열사가 없어 삼성석유화학이 이병철 선대회장이 창업한 것을 감안해 오너일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부진 상무가 창업주 가족을 대표해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P는 삼성석유화학의 적자를 이유로 몇년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석유화학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삼성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으며 삼성은 1년 정도 가격 협상을 벌이다 최근 합의에 이르러 최종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석유화학이 2006년 1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삼성이 지분을 전량 획득하면 혁신이 가능하고 BP와의 30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감안해 BP 보유지분을 전량 인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기존 삼성석유화학 주주 계열사들 중 삼성물산 외에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가 적자를 이유로 삼성석유화학의 지분 인수를 거부해 이부진 상무가 물산의 인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석유화학 관련사업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분인수에 참여했다.

기존 주주 계열사들이 인수 거부한 지분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떠넘길 수 없고 이건희 회장의 3자녀 중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인수 거부한 삼성석유화학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부진 상무 단독으로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

현재 호텔신라에서 경영전략담당인 이부진 상무가 개인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했으며 당분간 삼성석유화학의 최대주주 역할만 할 뿐 경영에는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석유화학 지분은 삼성과 BP가 각각 47.4% 보유하고 있었으며 삼성 지분은 제일모직이 21.39%, 삼성물산이 13.05%, 삼성전자가 12.96% 갖고 있었다.

삼성석유화학의 지분비율은 이부진 상무 33.18%, 삼성물산 27.27%, 제일모직 21.39%, 삼성전자 12.96%, 신세계 5.19%로 정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1>